

통계로 살펴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재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건축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건축물과 공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선진국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고, 더 친환경적이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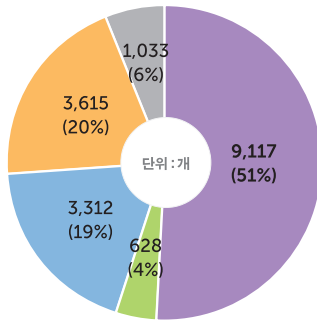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책적 육성·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2014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다.

건축서비스산업 및 유관산업의 시장규모(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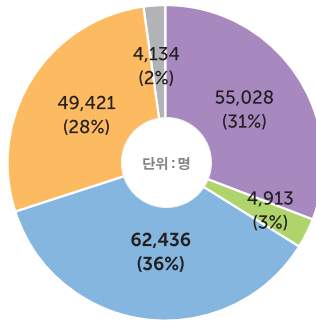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조사 결과(2013년 말 기준)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규모는 사업체 수 1만 7,705개, 종사자 수 약 17만 6,000명, 매출액 약 19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 건축서비스산업은 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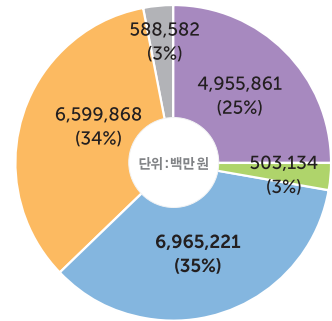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및 유관산업 규모



총 사업체 수 17,705개



총 종사자 수 175,932명



총 매출액 196,126억 원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인테리어 디자인업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1.37%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 산업 종사자수의 약 0.92%에 해당한다.*

201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사업체 수는 증가한 반면 업체당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2012년 기준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10.2명, 매출액은 11억 5,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각각 1.2%와 1.3% 감소하였으며, 2013년 단위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9.9명, 매출액은 11억 8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2, 2013년 단위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 수 변화

	2012년	2013년
단위사업체당 매출액 	1,150백만 원	1,108백만 원
단위사업체당 종사자 	10.2명	9.9명

*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 국민계정(2013년 말 기준, 2015년 10월 1일 갱신) 기준, 전 산업 종사자 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3년 말 기준, 2014년 12월 30일 갱신)를 참고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현황(2013년 말 기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사사무소가 주를 이루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체는 총 9,117개이고 5만 5,028명이 종사하며, 총 매출액은 4조 9,559억 원으로 집계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전체에서 사업체 수 기준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총 종사자 수의 31%, 총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6.0명, 1인당 매출액은 9,000만 원이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내의 사업체 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4인 이하 사업체가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그러나 50인 이상 사업체가 총 종사자 수의 36.1%, 총 매출액 기준 44.6%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나 종사자 수와 매출액 비중은 높지 않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1인당 매출액이 크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규모별 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사업체 규모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사업체 수 (개)	6,932 (76.0%)	1,443 (15.8%)	449 (4.9%)	181 (2.0%)	112 (1.2%)	9,117 (100%)
종사자 수 (인)	15,164 (27.6%)	8,892 (16.2%)	5,899 (10.7%)	5,193 (9.4%)	19,880 (36.1%)	55,028 (100%)
매출액 (백만 원)	959,488 (19.4%)	742,206 (15.0%)	526,068 (10.6%)	520,120 (10.5%)	2,207,980 (44.6%)	4,955,861 (100%)
사업체당 종사자 수	2.2	6.2	13.1	28.7	177.5	6.0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 원)	138	514	1,172	2,874	19,714	544
1인당 매출액 (백만 원)	63	83	89	100	111	90

자료: 통계청, 「20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4.b.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총 628개이고 4,913명이 근무하며, 총 매출액은 5,031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사업체 수 기준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전체의 4%, 종사자 수 기준으로 3%, 총 매출액 기준으로 3%에 해당한다. 사업체당 종

사자 수는 7.8명, 1인당 매출액은 1억 200만 원으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사업체 규모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체가 사업체 수의 46.2%로 가장 많고, 종사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는 5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반대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1인당 매출액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규모별 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사업체 규모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사업체 수 (개)	290 (46.2%)	223 (35.5%)	68 (10.8%)	39 (6.2%)	8 (1.3%)	628 (100%)
종사자 수 (인)	677 (13.8%)	1,425 (29.0%)	869 (17.7%)	1,187 (24.2%)	755 (15.4%)	4,913 (100%)
매출액 (백만 원)	102,026 (20.3%)	178,059 (35.4%)	85,694 (17.0%)	85,990 (17.1%)	51,364 (10.2%)	503,134 (100%)
사업체당 종사자 수	2.3	6.4	12.8	30.4	94.4	7.8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 원)	352	798	1,260	2,205	6,421	801
1인당 매출액 (백만 원)	151	125	99	72	68	102

자료: 통계청, 「20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4.b.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 3,312개, 종사자 수 6만 2,436명, 매출액 6조 9,65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사업체 수 기준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전체의 약 19%, 종사자 수 기준으로 36%에 해당하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18.9인, 1인당 매출액은 평균 1억 1,200만 원 수준이다.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규모별 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사업체 규모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사업체 수 (개)	1,474 (44.5%)	760 (22.9%)	500 (15.1%)	394 (11.9%)	184 (5.6%)	3,312 (100%)
종사자 수 (인)	3,426 (5.5%)	4,972 (8.0%)	6,672 (10.7%)	12,020 (19.3%)	35,346 (56.6%)	62,436 (100%)
매출액 (백만 원)	285,401 (4.1%)	480,643 (6.9%)	572,795 (8.2%)	967,379 (13.9%)	4,659,004 (66.9%)	6,965,221 (100%)
사업체당 종사자 수	2.3	6.5	13.3	30.5	192.1	18.9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 원)	194	632	1,146	2,455	25,321	2,103
1인당 매출액 (백만 원)	83	97	86	80	132	112

자료: 통계청, 「20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4.b.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내에서는 4인 이하 사업체가 1,474개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총 3만 5,346명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한다. 총 매출액 또한 50인 이상 사업체의 비중이 6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인당 매출액도 가장 높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의 기계·설비 분야 엔지니어링 업체가 주로 포함되어 있다. 사업체 수 3,615개, 종사자 수 4만 9,421명, 매출액은 6조 5,999억 원으로 집계되며, 이는 건축서비스 산업 전체 사업체 수의 20%, 종사자 수의 28%, 매출액의 34%에 해당한다. 1인당 매출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5개 세부 업종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업종 내의 사업체 규모별로는 4인 이하 사업체가 4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종사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체가 각각 42.4%와 5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와 1인당 매출액의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4인 이하 사업체부터 2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의 1인당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규모별 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사업체 규모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사업체 수 (개)	1,725 (47.7%)	747 (20.7%)	569 (15.7%)	403 (11.1%)	171 (4.7%)	3,615 (100%)
종사자 수 (인)	3,592 (7.3%)	4,884 (9.9%)	7,670 (15.5%)	12,343 (25.0%)	20,932 (42.4%)	49,421 (100%)
매출액 (백만 원)	509,589 (7.7%)	699,776 (10.6%)	928,774 (14.1%)	986,184 (14.9%)	3,475,546 (52.7%)	6,599,868 (100%)
사업체당 종사자 수	2.1	6.5	13.5	30.6	122.4	13.7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 원)	295	937	1,632	2,447	20,325	1,826
1인당 매출액 (백만 원)	142	143	121	80	166	134

자료: 통계청, 「20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4.b.

인테리어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경우 사업체 수 1,033개, 종사자 수 4,134명, 총 매출액 5,886억 원 규모이며, 건축서비스산업 전체에서 사업체 수 기준 6%, 종사자 수 기준 2%, 매출액 기준 3% 비중을 차지한다. 1인당 매출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5개 세부 업종 가운데 가장 높다.

인테리어 디자인업 규모별 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사업체 규모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사업체 수 (개)	761 (73.7%)	194 (18.8%)	56 (5.4%)	19 (1.8%)	3 (0.3%)	1,033 (100%)
종사자 수 (인)	1,512 (36.6%)	1,227 (29.7%)	678 (16.4%)	532 (12.9%)	185 (4.5%)	4,134 (100%)
매출액 (백만 원)	110,796 (18.8%)	168,320 (28.6%)	121,684 (20.7%)	165,457 (28.1%)	22,325 (3.8%)	588,582 (100%)
사업체당 종사자 수	2.0	6.3	12.1	28.0	61.7	4.0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 원)	146	868	2,173	8,708	7,442	570
1인당 매출액 (백만 원)	73	137	179	311	121	142

자료: 통계청, 「20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4.b.

사업체 규모별로는 4인 이하 사업체가 업종 내에서 7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총 매출액 기준으로는 5인 이상 9인 이하 규모 사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28.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1인당 매출액은 20인 이상 49인 이하 규모 사업체가 3억 1,100만 원으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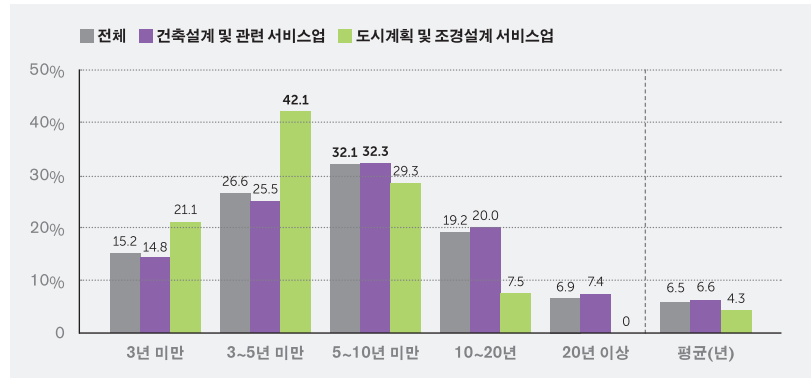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경영 실태

건축서비스산업의 세부 부문 중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체에 대해서 종사자 특성, 주요 사업 분야, 해외사업 경험 등 국가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2013년 말 기준이며, 총화 표본 추출 조사를 실시하여 원가중한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종사자 특성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중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정규직 4만 7,311명(97.6%), 비정규직 950명(2.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정규직 5,282명(96.5%), 비정규직 110명(3.5%)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산업 종사자 주요 연령은 40대가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40대가 33%(15,945명)로 가장 높고,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분야는 30대가 41.2%(2,2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 분포의 차이는 경력 및 근속기간에서도 나타나는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가장 많은 반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기간은 건축 및 관련 서비스업 6.6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4.3년이며 전체 평균은 6.5년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주요 사업 분야, 수주 방식 및 생산성

주요 사업 분야로는 ‘건축설계’(90.2%), ‘설계 감리’(79.7%)가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건축설계’(95.9%)와 ‘설계 감리’(83.6%)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조경계획 및 설계’(45.9%), ‘도시계획 및 설계’(35.3%), ‘설계 감리’(20.7%)가 주 사업 분야로 조사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주요 수주 실적은 공공 분야보다 민간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수주 성공률은 평균 21%(입찰 17만 7,705건, 낙찰 3만 7,457건), 평균 프로젝트 계약건수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사업공급방식에 따른 수주액 비율은 ‘경쟁선정방식’ 17.8%, ‘비경쟁’ 82.2%로 비경쟁 수주액 비율이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방식 수주액 비율이 높아지고 규모가 작을수록 비경쟁 방식 수주액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 주 의뢰주체로는 ‘개인의뢰’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사 외 민간기업’ 38.5%, ‘지방행정기관’ 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개인의뢰’ 집중도가 높은 반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개인의뢰’, ‘건설사 외 민간기업’, ‘지방행정기관’,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등 의뢰주체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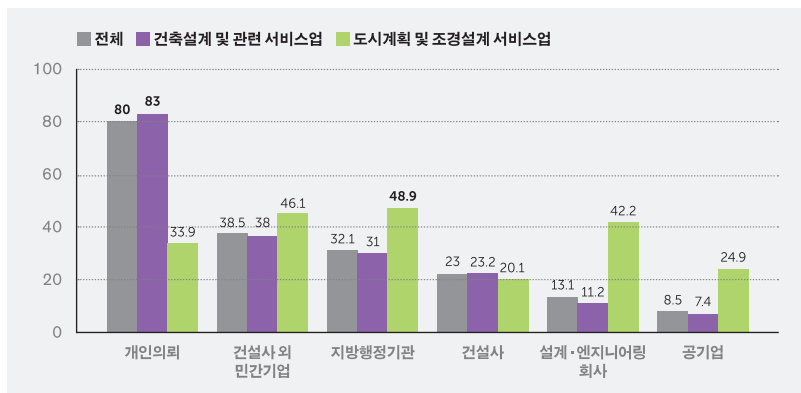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주요 수행 사업 분야(중복응답)*

(단위: %)

	건축 설계	설계 감리	유지 관리	건축 구조	도시 계획 및 설계	인테리어	조경 계획 및 설계	기타
합계	90.2	79.7	5.7	5.5	4.7	4.5	4.3	7.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95.9	83.6	6	5.8	2.6	4.7	1.5	6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2	20.7	1.9	0.8	35.3	1.3	45.9	26

주 의뢰주체 상위 6개 항목(중복응답, 1+2+3순위)

(단위: %)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해외진출 현황

사업체 중 국제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2.5%(건축 2.3%, 도시 및 조경 6.3%)였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국제사업 수행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국제사업 수행 경험률이 42.3%로 조사되었다.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국제사업 계약 건수는 전체 831건(건축 746건, 도시 및 조경 85건)이었으며, 총 매출액 중 해외사업 매출액 비율은 22.7%이다.

국제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의 공공 국제사업 수행 경험률은 33.9%, 민간 국제사업 수행 경험률은 72.8%로 조사되었으며, 민간 국제사업 주요 발주 성격으로는 '수의계약' 79.4%(건축 86.6%, 도시 및 조경 47.8%), '설계공모' 10.9%(건축 6%, 도시 및 조경 32.7%)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음영은 '기타'를 제외한 수행 사업 분야 상위 3순위이며, 기타 사업 분야는 '건축건축', '건축적산', '토목설계' 등을 포함한다.

국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전체 22.1%로 해외진출 의향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문 분야별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비해 도시계획 및 조정설계 서비스업 분야에서 해외진출 의향이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해외진출 의향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사업체에서 진출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국제사업 희망 진출 지역은 '아시아'가 70.8%로, 타 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사업 성격별 경험률 및 사업발주 성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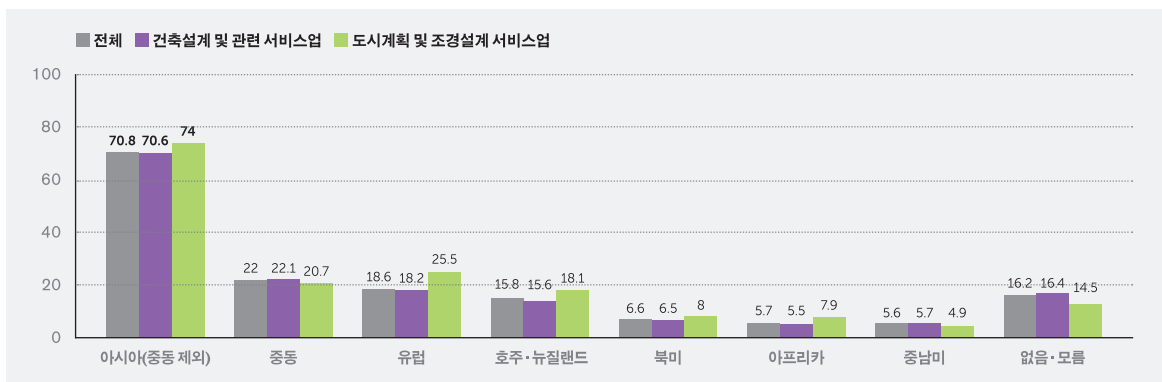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 민간 국제사업 주요 발주 성격 사례 수는 178개이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145개, 도시계획 및 조정설계 서비스업은 33개이다.

** 공공 국제사업 주요 발주 성격 사례 수는 총 83개이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73개, 도시계획 및 조정설계 서비스업은 11개이다.

국제사업 진출 희망 지역(중복응답, 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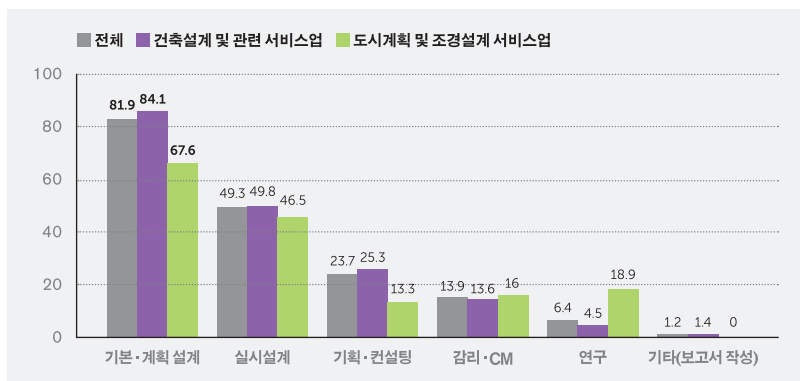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정보화 수준 및 직원 교육 현황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중 BIM과 GIS 등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업체는 10개 업체당 1개(9.6%) 정도이며, 업체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별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8.8%,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0.6%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문 분야별 주요 활용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BIM 활용 가능 인원이 71.2%로 GIS(26.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에서는 GIS 활용 가능 인원이 84.7%로 BIM(1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기술을 ‘기본·계획 설계’에 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8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시 설계’(49.3%)와 ‘기획·컨설팅’(23.7%)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주요 활용 분야(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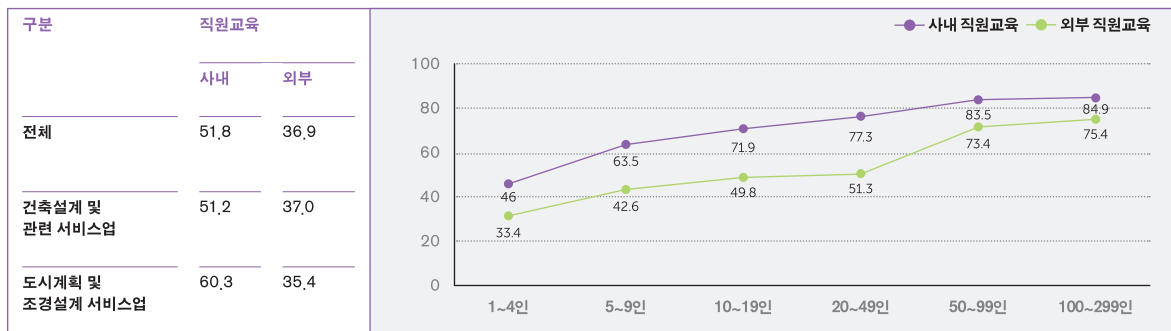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사업체별 직원교육 현황은 사내 직원교육 실시율 51.8%, 외부 직원교육 실시율 36.9%로 사업체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 분야별로는 사내 직원교육의 경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외부 직원교육으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교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실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업체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분야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율

(단위: %)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실시 중인 주요 직원교육으로는 ‘디자인·설계’, ‘법·제도·사업절차’, ‘프로그램·컴퓨터·BIM’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직원교육은 ‘디자인·설계’, ‘프로그램·컴퓨터·BIM’, ‘법·제도·사업절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로 하는 교육은 ‘디자인·설계’, ‘법·제도·사업절차’, ‘프로그램·컴퓨터·BIM’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교육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 사내·외부 주요 직원교육 (중복응답)

	사내 직원교육			외부 직원교육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디자인·설계 (38.1%)	법·제도·사업절차 (32.2%)	프로그램·컴퓨터·BIM (22.4%)	디자인·설계 (16.0%)	프로그램·컴퓨터·BIM (12.8%)	법·제도·사업절차 (14.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디자인·설계 (38.1%)	법·제도·사업절차 (28.2%)	프로그램·컴퓨터·BIM (26.3%)	디자인·설계 (13.8%)	법·제도·사업절차 (11.9%)	안전교육·위험관리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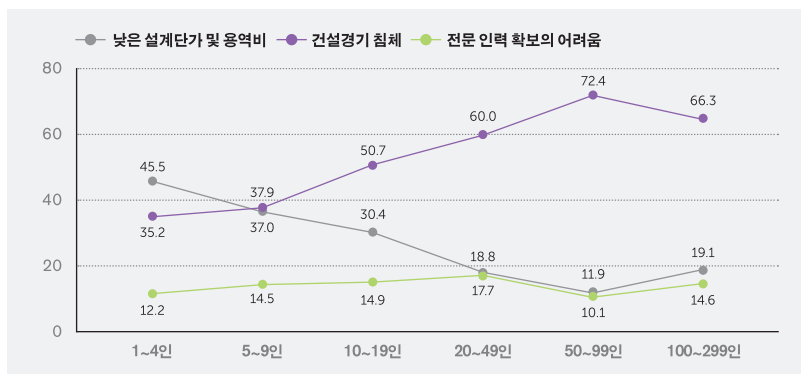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산업전망

건축서비스산업 육성·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낮은 설계단가 및 용역비’, ‘건설경기 침체’,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주요 장애요인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설계단가 및 용역비’에 관한 응답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건설경기 침체’라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요 발전 장애요인에 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 발전 장애요인 인식 현황 (1순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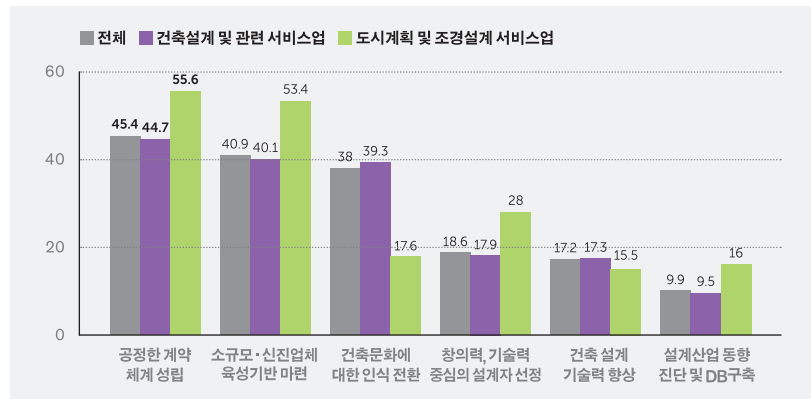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정한 계약체계의 성립’과 ‘소규모·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이 각각 45.4%와 4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모두 상위 두 개 항목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3순위 응답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창의력·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체 유형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정책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장애요인으로 ‘관련 정책의 잦은 변동’,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 ‘정부의 지원 부족’, ‘기타’ 등의 추가 응답이 있었으나 응답률은 3% 미만이었다.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건축서비스산업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업체 수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업과 기타 엔지니어링 부문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단기 추세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들 업종의 비중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핵심 업종인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수가 많은 반면, 매출액 비중은 50인 이상 사업체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업체 수가 많아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자발적인 기업화와 경쟁력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업체 수가 매우 적은 반면, 소규모 업체의 1인당 매출액이 대규모 업체를 상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체들의 경우에도 사업체 규모와 1인당 매출액이 어느 정도 비례 관계를 보이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비해 그 편차가 크지는 않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에 비해 종사자의 경력연수와 연령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방법에 있어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개인 의뢰에 의한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기업 및 공공 주체들의 수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사업체들의 실적이나 사업 추진 기반이 취약하며, 정보화 수준과 직원 교육 훈련 등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의 산업 분야 전망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으로는 공정한 계약체계 확립, 소규모 신진 사업체 육성 기반 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 파악이나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 번의 실태조사로 완벽한 진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만 보다 입체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1 통계청, 「2013 사업체 총조사」, 2014.a.
- 2 통계청, 「20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4.b.
- 3 한국은행, 「2013 국민계정」, 2015.
- 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15.